백두산 2

21세기 태양 종자론

주체91(2002)년 5월 7일

종자는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잡아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무엇보다도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잡아야 한다.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종자를 잡는 것은 작가, 예술인들이 종자를 탐구하는 데서 확고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종자선정에서의 이 근본원칙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의 본성과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민중의 사상감정과 요구에 맞게 창조되며 민중의 이익과 사상감정을 반영하는 것을 본성적 요구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문학예술은 민중의 자주위업, 노동계급의 혁명투쟁과 새 사회 건설위업에 복무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당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으며 당의 노선과 정책을 구현하는 것을 본분으로 하고 있다. 문학예술작품이 당의 노선과 정책을 구현하려면 종자 자체가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설정되어야 창작에서 당성원칙을 철저히 견지할 수 있으며 시대의 요구와 민중의 지향에 맞는 문학예술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해 낼 수 있다.

당정책의 요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은 작품의 종자가 훌륭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된다. 그러므로 훌륭한 종자를 잡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종자를 잡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

당정책의 요구에 맞는 종자를 잡는다는 것은 창작가들이 작품의 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당의 노선과 정책에 튼튼히 의거한다는 것을 말한다.

당의 노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는 것은 훌륭한 종자를 골라잡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당의 노선과 정책은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생활을 정확히 이해하며 생활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게 함으로써 훌륭한 종자를 잡을 수 있게 한다.

당정책은 사람들에게 생활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눈을 틔워 주며 생활을 보다 훌륭하게 개조해 나갈 수 있는 방도를 가르쳐 준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를 똑바로 잡으려면 무엇보다도 작가, 예술인들이 생활을 정확히 분석평가하고 생활의 본질을 똑바로 파악하여야 한다.

종자란 생활을 독창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창작가가 잡아쥔 생활의 씨앗이며 사상적 알맹이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생활 속에 있다. 그런데 종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

조선예술영화 ≪비행사 길영조≫

생활의 씨앗, 사상적 알맹이로서 종자는 생활의 본질을 체현하고 있다. 생활의 본질을 떠나서 작품의 종자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이로부터 훌륭한 종자를 골라잡는 문제는 창작가들이 생활을 정확히 분석평가하며 생활의 본질을 탐구하는 문제와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다. 훌륭한 종자를 골라잡기 위해서는 창작가들이 생활을 깊이 탐구하고 정확히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생활의 본질을 똑바로 인식하여야 한다.

생활은 언제나 다양하고 복잡하다.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 속에서 본질적인 것, 합법칙적인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훌륭한 종자를 잡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당의 노선과 정책은 작가, 예술인들에게 생활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분석평가하며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 속에서 본질적인 것, 합법칙적인 것을 제때에 찾아낼 수 있게 하는 안목을 키워 준다.

당의 노선과 정책은 나라의 혁명적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 주고 있는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침이다.

당의 노선과 정책에 튼튼히 의거한 사람만이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 속에서 새것과 낡은 것을 정확히 가려내고 본질적인 것을 똑바로 찾아낼 수 있다. 당의 노선과 정책이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를 잡는데 있어서 작가, 예술인들이 의거하여야 할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당의 노선과 정책은 또한 창작가들로 하여금 현실생활에서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내세우게 함으로써 훌륭한 종자를 골라잡을 수 있게 한다.

당정책에 의거하여 현실을 대하는 작가만이 생활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을 똑바로 가려낼 수 있다.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탐구하는 것은 훌륭한 종자를 잡는 데 있어서 필수적 요구로 나선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반드시 일정한 인간문제를 체현하고 있다. 인간문제를 안고 있지 못한 종자는 인간학의 종자로 되지 못한다.

종자를 탐구하는 과정은 현실속에서 의의있고 뜻깊은 인간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자를 선정하는 데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찾아내는 일은 창작가들이 당의 노선과 정책에 튼튼히 의거함으로써만 원만히 실현된다.

당의 노선과 정책은 혁명과 건설의 앞길을 가르쳐 주는 나침반이며 사람들에게 생활과 투쟁의 진로를 밝혀 주는 횃불이다.

당의 노선과 정책에 튼튼히 의거한 창작가들만이 현실 속에서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때에 정확히 찾아 낼 수 있으며 가치있는 종자를 잡아쥘 수 있다.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종자를 잡는 것은 높은 정치성, 사상성을 구현한 문학예술작품창작의 필수적 요구이다.

높은 정치성, 사상성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의 본질적 특징이며 문학예술의 가치와 사상교양적 역할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이다. 정치성, 사상성을 떠나서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혁명투쟁과 새 사회 건설로 불러일으키는 문학예술의 사명과 역할을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문학예술작품에 정치성, 사상성을 구현하는 문제는 그 어떤 정치적 개념을 나열하거나 사상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정치성, 사상성을 높인다고하여 작품에 정치적 내용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나 생활만을 그려서는 안 된다. 작품이 높은 정치성, 사상성을 구현하려면 정치적 의의가 큰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밝혀 내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작품의 핵으로, 형상의 기초로 되는 종자 자체가 정치적 의의가 큰 사회적 문제, 인간문제를 체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당정책의 요구에 맞는 종자, 정치적 의의가 큰 종자를 심어 놓아야 작품창작의 전과정에 당의 의도와 요구를 철저히 견지할 수 있으며 높은 정치성, 사상성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구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당의 노선과 정책에 의거하여 종자를 잡는 것은 종자선정에서 작가, 예술인들이 견지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당정책의 요구에 맞는 종자를 잡기 위해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당의 노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에 의거하여 현실을 대하는 작가, 예술인들만이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 속에서 당정책의 요구에 맞는 종자를 잡아쥘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종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당정책을 연구한다기보다 당정책을 적극 옹호하는 작품을 쓰기 위하여 종자를 찾아낸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창작가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창작의 지침으로, 신념으로 삼을 때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 속에서 정치적의의가 큰 훌륭한 종자를 잡아쥘 수 있게 된다.

만일 창작가가 작품의 종자를 찾기 위한 견지에서만 당정책을 연구하게 되면 그 부문에 대한 정치적 안목과 식견밖에 가질 수 없게 된다. 결국 이렇게 되면 풍부하고 다양한 현실생활 속에서 작품의 종자를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분야의 생활에서 종자를 찾는 데 몰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는 현실적으로 의의있는 훌륭한 종자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우물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기 목소리의 울림밖에 듣지 못하는 법이다.

어떤 생활에서 종자를 잡기 위하여 그 문제의 각도에서만 당정책을 연구하는 데 그치면 당정책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체득할 수 없고 생활을 일면적으로 피상적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종자를 똑바로 잡아쥘 수 없다. 바로 이로부터 창작가들이 당정책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연구체득할 데 대한 필수적 요구가 제기된다.

당정책의 요구에 맞는 종자를 잡기 위해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당정책을 단순

종자론

종자는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잡아야 한다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골라잡아야 한다
사상성과 예술성

조선예술영화 ≪밝은 태양 아래서≫

히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실무주의적 경향을 배격하고 그것을 자기의 신념으로, 창작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혁명적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 예술인들은 당정책을 한낱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실무주의적 경향을 배격하고 당정책을 자기의 신념으로, 창작의 지침으로 삼을 때에만 당의 요구에 맞는 작품의 사상적 알맹이를 잡아쥘 수 있다.

작가,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당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한낱 지식을 얻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당의 노선과 정책은 작가, 예술인들에게 생활에 대한 옳은 관점과 입장을 심어 주며 과학적인 창작적 지침과 방법론을 안겨 준다. 당의 노선과 정책은 작가,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창작의 기초로, 지침으로 된다.

작가, 예술인들이 당정책을 연구하는 목적은 현실에 대한 당의 혁명적 입장과 관점을 체득하는 데 있다. 다시말하여 인간과 그 생활, 사회현실을 민중의 입장과 관점에서 분석평가하며 창작의 전과정에 걸쳐 당정책적 요구를 확고히 견지하려는 데 있다. 작가, 예술인들이 당정책을 한낱 지식으로만 습득하여서는 올바른 창작적 지침을 소유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당정책의 요구에 맞는 종자를 골라잡을 수 없다. 당정책을 지식으로 습득한다는 것과 그것을 생활의 신념, 창작의 지침으로 삼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종자를 똑바로 잡는 데 있어서 창작가들이 지식을 소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생활의 신념, 과학적인 창작적 지침을 소유하는 것이다. 생활에 대한 단순한 지식만 가지고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 속에서 의의있고 가치있는 종자를 잡아내지 못한다. 당정책의 요구에 맞는 종자를 잡으려면 과학적인 창작적 지침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올바른 창작적 지침을 소유한 작가, 예술인들만이 그 어떤 생활을 대하든지 정확히 분석평가할 수 있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 속에서도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로 될 수 있는 문제를 찾아 낼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명백히 인식하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그것은 당정책의 요구에 맞는 종자를 잡는다는 것이 당의 정책적 문제들을 종자로 내세우는 데 귀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의 노선과 정책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민중들의 생활에서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절실한 문제들을 내세우고 그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밝혀 주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당의 정책적 문제가 그대로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로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렇다고하여 당의 정책적 문제들을 반영한 종자만이 현실적으로 의의있는 종자라고 볼 수는 없다. 사실주의문학예술은 인간과 그 생활, 사회현실을 다양하게 그릴 것을 요구하며 작품의 종자도 다양하게 설정할 것을 요구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당정책적 문제를 종자로 잡을 수도 있고 이러저러한 다른 생활분야에서 종자를 잡을 수도 있다. 종자를 골라잡는 데 있어서 작가, 예술인들이 당정책적 요구를 떠나서는 절대로 안되지만 당정책의 요구에 맞는 종자를 잡는다고 하면서 정책적인 문제만 들고나와도 안 된다. 당정책적 문제를 잡지 않고 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이나 문화도덕생활분야에서도 당정책적 요구에 맞으며 정치적 의의가 큰 종자를 얼마든지 골라잡을 수 있다.

당정책적 문제를 종자로 내세워야만 반드시 작품의 정치성, 사상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전사회적인 문제를 들고 나왔으나 어느 한 인간에 대해서도 똑똑히 이야기하지 못한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 한 개인의 생활, 한 가정의 운명을 통하여 전사회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 해답을 준 작품들도 있다.

당정책의 요구에 맞는 종자를 골라잡는 문제는 당정책적 문제들을 종자로 내세우는 것만으로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정치적 의의가 큰 인간문제, 사회적 문제를 탐구하고 발견해 내는 것으로 실현된다. 당의 노선과 정책을 한낱 지식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유일한 창작적 지침으로 삼은 작가, 예술인들만이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 속에서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는 종자를 찾아 낼 수 있으며 평범하고 예사로운 생활 속에서도 정치적 의의가 크고 가치있는 종자를 발견해 낼 수 있다.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종자를 골라잡을 데 대한 원칙이 제시됨으로써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에서 온갖 불건전한 경향을 철저히 막아내고 문학예술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뚜렷한 길이 열리게 되였다.

온갖 반혁명적 경향과 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문학예술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시대 민중의 혁명적 지향이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창작방법의 기본요구의 하나이다. 사회주의문하예술은 자체내에 그 어떤 사소한 불건전한 요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문학예술의 창작에서 온갖 불건전한 경향과 요소들을 철저히 극복청산하려면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의 첫 공정으로 되는 종자를 골라잡는 데 있어서 혁명적 입장을 철저히 견지하여야한다.

작품의 핵을 이루며 창작의 전과정을 제약하는 종자가 당정책의 요구에 맞는 것이라야 당의 노선과 정책에 부합되고 혁명의 이익, 민중의 지향에 맞는 문학예술작품이 창작될 수 있다. 온전치 못한 종자에서 좋은 결실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당정책의 요구에 맞는 훌륭한 종자를 심어놓은 기초 위에서만 창작가는 작품에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인물성격과 인간생활을 당정책적 견지에서 설정하고 형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견지에서 작품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당의 노선과 정책에 튼튼히 의거한 작가, 예술인들은 현실 속에서 의의있는 종자를 제때에 잡아쥐게 되며 따라서 그들의 창작은 실패와 우여곡절이 없이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나가게 된다.

실로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종자를 잡는 것은 작가, 예술인들이 시종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창작원칙이며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문예창작방법론≫ 종자의 탐구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골라잡아야 한다

창작가들은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를 새롭고 특색있게 잡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종자는 언제나 새롭고 특색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생활에서 특색있는 종자를 골라잡는 것은 참신한 형상을 창조하는 전제 조건으로 된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새롭고 특색이 있어야 한다.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골라잡을 데 대한 문제는 창작의 본성으로부터 필수적 요구로 제기된다.

창작은 본래의 의미에서 독창적이며 비반복적이다. 독창성은 창작의 본성이다. 작품창작이 독창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나서는 새롭고 참신한 문제를 예리하게 포착하여 특색있게 풀어낸다는 것이다. 창작에서 아무러한 독창성이 없이 다른 사람이 이미 내놓은 것을 그대로 되풀이하여서는 훌륭한 작품을 창작해 낼 수 없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은 사람들에게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을 똑바로 보고 사회를 변혁해나갈 줄 아는 독자적인 사고력을 키워줄 수 없고 창조적인 열정을 안겨 줄 수 없다.

인간과 생활이 다양하고 풍부한 만큼 현실을 반영하는 문학예술도 다양하게 되어야 하며 현실에 있는 모든 사물과 현상이 모두 고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존재인만큼 그것을 반영하는 작품도 구체적이고 특색이 있어야 한다. 생활을 파악하고 반영하는 작가와 예술인들도 모두 개성적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사상과 감정, 생활체험과 창작경험이 서로 다르다. 생활을 관찰하고 분석평가하며 형상화하는데서 창작가들은 자기식의 특성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창작적 개성이 서로 다른 작가들이 엇비슷한 작품들을 썼다면 그것은 생활을 제 눈으로 보고 자기 주장대로 그려 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한다. 100명의 작가가 작품을 창작하였다면 사상적 내용에 있어서나 예술적 형식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각기 특색이 있는 100가지작품이 나와야 한다. 만약 창작적 생성이 없이 누구나 꼭같은 작품을 내놓는다면 100편의 작품을 쓰는데 100명의 작가가 필요없게 될 것이다. 문학예술작품을 상품을 생산하듯이 형틀로 찍어 낼 수는 없다. 사람들은 판박이 작품이 아니라 다양하고 특색있는 작품을 요구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창작에서 독창성을 발휘하여야 조국과 민중에게, 시대와 혁명앞에 참답게 이바지 할 수 있다. 세상에 이름난 작가, 예술인들은 모두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독창적인 창작으로써 자기 조국과 민중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한 열렬한 애국자들이였으며 견결한 투사들이였다.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에서 독창성을 발휘하여야 문학예술의 발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창작자는 아직 그 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걷는 선구자이며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탐구자이다.

창작가는 언제나 독창적인 창작의 길을 걸어 나가면서 새로운 형상세계를 창조해 내야 한다. 문학예술의 역사는 독창적인 형상세계로 아로새겨져 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독창적인 형상, 개성적 특성이 뚜렷한 작품을 창작해 내야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으며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고귀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문학예술의 창작에서 이처럼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독창성을 살리는 문제는 작가, 예술인들이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골라잡는 조건에서만 원만히 실현된다. 작품에서 형상의 새로운 맛과 독창성은 무엇보다도 특색있는 종자에서 흘러나온다. 작품창작이 독창적으로, 비반복적으로 되려면 창작의 기초에 놓이는 종자가 새롭고 특색이 있어야 한다. 비반복적이고 독창적인 형상의 창조는 새롭고 독창적인 종자를 고르는 데로부터 시작된다. 작품의 핵으로 사상예술적 기초로 되는 종자를 새롭고 특색있게 설정하지 않고서는 창작에

정일봉의 세쌍무지개

서 독창성을 발휘할 수 없으며 개성적 특징이 뚜렷한 작품을 창작할 수 없다.

특색있는 예술적 형상은 특색있는 종자로부터 피어난다. 작품에 그려지는 인물성격이나 인간생활이 종자에 의하여 규제되는 만큼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내세운 조건에서만 작품에서 인물성격과 생활을 독창적으로 그려 낼 수 있다. 물론 독창적인 예술적 형상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는 작가, 예술인들의 미학적 관점과 예술적 취미 등도 중요한 작용을 하며 형상 수법과 수단, 기교 등을 특색있게 살려 쓰는 문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적 개성도 종자를 똑바로 잡는 조건에서만 충분히 발휘될 수 있으며 빛을 낼 수 있다.

작품창작에서의 독창성은 무엇보다도 작가, 예술인들이 작품에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내세우고 그것을 형상적으로 특색있게 풀어나가는 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새로운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는 과업도, 인간과 그 생활을 새롭게 탐구하고 특색있게 그려내는 문제도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골라잡은 기초위에서만 원만히 실현된다.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속에서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골라잡는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예술적 형상을 훌륭히 창조할 수 없는 만큼 작가, 예술인들은 작품창작에 앞서 반드시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골라잡기 위하여 창작적 열성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골라잡는 데서 실천적으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생활발전의 새로운 싹을 발견해 내는 것이다.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란 언제나 비반복적인 것이며 생활발전의 새로운 싹을 독특하게 체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색있는 종자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그것은 바닷가의 수억만 모래알 가운데 있는 하나의 금싸래기처럼 희귀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생활 속에 많으면서도 그 특색을 제때에 올바르게 가려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는 예외없이 생활발전의 새로운 싹을 체현하고 있다. 생활은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 생활이란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사람들의 활동이며 투쟁이다.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과 투쟁이 계속되는 한 인간생활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기 마련이다. 생활의 발전과정이란 새 것과 낡은 것의 투쟁과정이며 새 것이 산생되고 낡은 것이 사멸되어 가는 과정이다. 생활의 이 변증법적 과정은 필연적인 것이며 항구적인 것이다.

생활의 변증법적 과정에는 언제나 새로운 싹이 나타나는 법이다. 새로운 싹을 나타내지 않는 생활의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 생활발전의 새로운 싹은 긍정적인 것, 진보적인 것, 혁명적인 것을 대변하고 있다. 생활발전의 이 새로운 싹은 처음에는 극히 미세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고 보잘것 없는 싹이 자라나 나무가 되고 그것들이 합쳐져 무성한 숲을 이룬다.

생활발전의 새로운 싹은 생활의 본질적 내용과 특징, 사회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발전의 새로운 싹을 체현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야말로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로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는 사람들에게 생활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심어 주며 그들의 자주정신과 창조적 능력을 키워주고 보다 아름답고 훌륭한 생활을 창조하도록 사람들을 고무추동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을 믿음직하게 담보해 준다.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리

생활발전의 새로운 싹을 독특하게 체현하고 있는 종자를 발견해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생활발전의 새로운 싹이 생활 속에 많으면서도 그 특색을 표면에 잘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생활의 변화발전과정에는 새 것과 낡은 것이 끊임없이 교체된다. 생활발전의 새로운 싹은 낡은 것과의 투쟁 속에서 산생되며 처음에는 낡은 것이 우세를 차지하게 되고 흔히 새로운 싹은 그 자태를 뚜렷이 나타내지 못한다. 생활발전의 새로운 싹이 어느 부문의 생활에서나 다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생활발전의 새로운 싹을 체현하고 있는 특색있는 종자는 바닷가의 수억만의 모래알 가운데서 한 알의 금싸래기를 골라내는 식으로 찾아 낼 수는 없으며 작가, 예술인들이 높은 정치적 식견과 과학적 안목을 가지고 생활의 본질로 깊이 침투함으로써만 잡아쥘 수 있다.

생활발전의 새로운 싹을 체현한 특색있는 종자는 그 어떤 특정한 생활분야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생활과정에는 새로운 싹이 움트고 자라나기 마련이다. 새로운 싹은 그 어떤 생활속에서나 다 있으며 따라서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도 모든 부문의 생활속에나 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생활의 본질을 깊이 파악하며 생활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을 예리하고 정확하게 포착할 줄 아는 창작가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예사로운 생활속에서도 생활발전의 새로운 싹을 체현하고 있는 깊고 특색있는 종자를 발견해 낸다. 이것은 정치적 예술적 안목이 높고 생활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창작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새롭고 특색이 있는 종자를 골라잡기 위해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새로운 생활분야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창작가들이 어떤 생활분야에 눈을 돌리며 어떤 생활을 묘사대상으로 삼는가하는 것은 종자를 설정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작가, 예술인들이 새로운 생활분야에 눈을 돌리며 아직 그 누구도 형상한 적이 없는 생활에 깊이 침투하는 것은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골라잡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새로운 생활분야에 침투하지 않고 이미 다른 작품들에서 취급된 생활에만 매달려서는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탐구해 내기 어렵다. 같은 길을 여러 번 걷는 사람은 한가지 자연풍경만을 보기 마련이다.

인류문예사는 새로운 생활을 탐구하며 새로운 생활을 반영하기 위한 작가, 예술인들의 창조적 노력과 투쟁으로 엮어져 있다.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사람들의 활동과 투쟁이 끊임없이 증대되는만큼 작가, 예술인들이 새로운 생활분야에 눈을 돌리며 작품의 묘사영역을 확대하여 나가는 것은 합법칙적이다. 민중이 역사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새 사회, 새 생활을 창조해 나가는 우리 시대에 와서 사람들의 생활영역은 이전시기에 비하여 훨씬 넓어졌다. 민중의 자주적인 투쟁과 창조적인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새로운 생활분야가 연이어 개척되어 가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몇 세기 전까지만 하여도 지구의 대부분 지역이 사람들의 관할밖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사정이 전혀 달라졌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에서 전대미문의 전진과 비약을 이룩하였다.

우리 시대에 와서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됨에 따라 사람들의 실천활동과 생활영역은 비할바없이 넓어졌다. 고도로 발전된 현대적인 과학기술의 도움에 의하여 사람들은 지구 위의 모든 지역을 자기의 활동무대로 삼고 있다. 오늘 지구 위에는 인간의 발자취가 미치지 않는 곳이란 거의 없으며 사람들의 생활영역에 들어가지 않은 분야란 별로 없다. 지난 시기 사람들의 시야 밖에 있었던 지역이 오늘에 와서는 사람들의 생활무대로 변모하였다.

오늘 인류는 지구 밖의 세계인 우주세계에까지 자기 활동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쏘아올린 수천 개의 인공위성들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으며 우주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이 나날이 더욱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인류는 지구와 우주 사이를 마음대로 왕래하며 우주세계에도 일터를 펼치게 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되면 사람들의 생활영역은 더욱더 넓어지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문학예술의 묘사대상도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사람들의 활동영역이 나날이 끊임없이 넓어지고 인간생활이 더욱더 다양해지는 조건에서 작가, 예술인들은 응당 새로운 생활분야에 눈을 돌려야 하며 새로운 생활 속에서 특색있고 새로운 종자를 골라잡는 것은 문학예술작품을 인간학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창작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창작가들이 종자선정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으로 된다.

≪문예창작방법론≫ 종자의 탐구

사상성과 예술성

사회주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근본원칙은 또한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시키는 것이다.

김정일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시키는 것은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을 창작하는 데 서 지켜야 할 근본원칙입니다.≫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은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사상미학적 품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속성이다. 문학예술의 사상성은 일정한 계급의 요구와 이해관계가 예술적 형상을 통하여 구현된 것이다. 창작가가 어떤 계급의 세계관과 미학적 이상에 기초하여 인간과 생활을 대하고 평가하며 그리는가에 따라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성이 규정된다. 사회주의 문학예술은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인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높은 사상성을 가진다.

문학예술의 예술성은 인간과 생활을 형상적으로 반영하는 데로부터 가지게 되는 미학적 속성이다 예술성은 다른 사회적 의식형태들과는 달리 예술형상을 통하여 생활을 현실 그대로의 구체성을 가지고 표현하는 문학예술의 특성을 밝혀주는 개념이다.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문학예술건설의 중요한 근본원칙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상성과 예술성의 옳은 결합이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문학예술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어떻게 결합하는가 하는 것은 문학예술의 인식교양자적 기능을 좌우하는 원칙적 문제이다. 문학예술에서는 사상적인 것, 정치적인 것이 예술적인 것, 정서적인것과 결합되어야 생동한 형상으로 사람들에게 예술적 감흥을 줄 수 있으며 사람들을 사상미학적으로 교양할 수 있다. 사상성과 예술성이 옳게 결합된 예술이라야 사람들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인간개조사업으로서의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

사상성과 예술성의 관계에서 주도적이며 결정적인 것은 사상성이다.

계급사회에서 문학예술은 계급의 사상을 구현하고 그것을 보급하는 수단으로 되며 계급의 사상의 사회적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무기로 된다. 노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떠나서는 사회주의 문학예술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사회주의 문학예술은 공산주의 혁명사상으로 일관되어야 하며 높은 사상성을 가져야 한다.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사상성은 예술적 형상을 통하여 구현되어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은 추상적이며 일반적인 구호를 나열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산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공산주의혁명사상의 진리성과 위대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추상적인 구호와 직선적인 해석으로 예술적 형상을 대치하면 작품의 사상이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안겨질 수 없으며 문학예술이 사람들에 대한 사상미학적 교양의 기능을 옳게 수행할 수 없다.

문학예술에서 사상정치적인 것을 예술적인 것, 정서적인 것과 옳게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사상성과 예술성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하여야한다 작가, 예술인들이 유일하게 옳은 창작방법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의거하여 사회정치적으로 의의있는 생활소재를 선택하고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그에 올바른 사상미학적 평가를 주며 생활을 예술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하여야 사상성과 예술성의 올바른 결합을 실현할 수 있다.

조선화창작단 창작토론회

김정일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데서 어느 한 측면에 기울어져서는 안된다. 사상성과 예술성을 저울로 단다고 할 때 사상성이 더 무겁고 예술성이 가볍다든가 예술성이 더 무겁고 사상성이 가볍다든가 하여서는 안된다. 사상성과 예술성 사이의 균형이 옳게 보장되어야 이 두 측면의 결합이 완전히 실현되게 된다.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을 결합한 문학예술작품이라야 현실과 생활을 미적으로 감수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그들에게 건전한 예술적 취미와 기호를 키워주며 자주성을 위한 숭고한 목적을 실현하는 데로 인민대중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상성과 예술성의 옳은 결합은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가치와 위력을 높이게 한다.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시키는 것이 사회주의 문학예술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되는 것은 또한 그것이 사회주의 문학예술을 좌우경적 편향이 없이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문학예술을 우여곡절 없이 건전하게 발전시켜나가려면 사상성과 예술성을 다같이 높여야 하며 문학예술로 하여금 고상한 사상예술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역사적 경험은 사상성과 예술성의 호상관계에서 어느 한 측면만을 절대화하면 좌우경적 편향에 빠져 사회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심각한 진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학예술의 사상성을 무시하고 예술성만 강조하면 우경적 편향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문학예술의 사상교양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혁명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데 이바지하는 그 정치적 사명도 수행할 수 없게 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문학예술의 계급적 성격도 고수할 수 없게 된다.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예술성을 홀시하고 사상성만 내세우면 좌경적 편향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문학예술이 정서적인 감화력을 잃고 사람들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며 나아가서 예술로서의 본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사상교양적 기능을 높이는 동시에 예술로서의 정서적 감화력을 높여나가려면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문학예술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작품의 종자를 바로 쥐고 잘 가꾸는것이다.

김정일동지가 독창적으로 밝힌바와 같이 문학예술에서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 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이다.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작품이라는 산 유기체에 하나로 통일시키고 관통하여 나가는 생명의 핵이 바로 종자이다. 종자는 작품에 차넘치는 생명의 핵인 것만큼 작품의 내용을 규정하고 형상을 기초짓는다. 그러므로 종자를 똑바로 골라잡아야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이 옳게 결합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종자는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이기 때문에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킬 수 있는 바탕으로 된다.

작품의 사상예술적 기초로 되는 것이 종자이다. 창작가는 종자를 똑바로 쥐어야 생활의 본질을 보여주는 의의있고 심오한 사상을 밝혀낼 수 있으며 생활을 생동하게 예술적으로 형상할 수 있다.

좋은 종자는 문학예술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일 수 있게 하는 전제로 되며 작품의 사상예술적 질을 담보하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창작가는 심장을 틀어잡는 종자를 잡아야 창작에서 중심고리를 튼튼히 틀어쥐고 빠른 속도로 창작할 수 있으며 작품의 사상예술적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다.

작품의 종자는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잡아야 하며 형상으로 구현할 수 있고 언제나 새롭고 특색이 있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종자를 바로잡은 다음에는 종자에 맞게 모든 형상요소들을 집중시키고 심화해 나가면서 예술적으로 잘 가공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성격을 옳게 설정하고 생동하게 그리며 종자의 요구에 맞는 생활을 선택하여 진실하게 묘사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문학예술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하여 사상예술성의 높은 작품을 창작하는 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것은 또한 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는 것이다.

철학적 깊이는 작품의 정치사상적 풍격과 예술적 가치를 규정하는 사상미학적 속성이다. 철학적 깊이란 무엇보다도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적 내용의 철학적 심오성, 높은 정치사상성을 말한다. 사상적 내용이 철학적으로 깊이 있고 사람의 운명문제에 심오한 해명을 준 작품이 철학적 깊이를 가진다. 작품의 철학적 깊이가 사상적내용의 철학적 심오성, 높은 정치사상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작품의 정치사상적 풍격을 규정하게 된다.

철학적 깊이는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적 내용의 철학적 심오성, 높은 정치사상성을 의미할뿐아니라 형상의 심오성, 고상한 예술성을 말한다. 생활의 본질을 높은 수준에서 예술적으로 일반화한 작품이 철학적 깊이를 가진다. 작품의 철학적 깊이가 형상의 심오성, 고상한 예술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규정한다.

철학적 깊이가 작품의 높은 정치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는 것은 사상성과 예술성이 옳게 결합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수 있게 하는 튼튼한 담보로 된다.

문학예술작품의 철학적 깊이는 작품전체에서 철학성이 흘러나오도록 작품의 모든 요소를 깊이 있게 형상할 때 실현된다.

문학예술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철학적 무게가 있는 종자를 쥐고 예술적으로 잘 가꾸어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또한 사회적 문제를 예리하게 제기하고 풀어야 한다.

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또한 생활을 새롭게 탐구하여야 한다.

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또한 깊이 있고 분석적인 세부묘사와 언어구사를 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에는 생활세부들이 반영되며 세부묘사가 없이는 예술적 형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의 세부를 통하여 인간과 생활의 전모를 그려보고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생활세부를 깊이 있게, 분석적으로 묘사하여야 작품의 철학적 깊이가 보장된다.

이와 같이 주체를 세우고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구현하며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하는 것은 사회주의 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가장 올바른 근본원칙이다.

주체사상 총서 8권(부분발췌)